

2025학년도 10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윤리와 사상]

1	①	2	④	3	①	4	②	5	②
6	③	7	①	8	④	9	①	10	⑤
11	③	12	⑤	13	⑤	14	⑤	15	④
16	③	17	②	18	③	19	④	20	①

1. [출제의도] 동학의 입장 이해하기

가상 대화의 스승은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이다.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임을 깨닫고 모든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고 본다. 또한 동학은 후천 개벽이 현실에서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2. [출제의도] 흠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흠의 주장이다. 흠은 덕과 악덕의 구별이 감정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흠은 공감 능력이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산출하는 행위가 시인(是認)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적절한 상태로 보았고, 그 자체로 나쁜 행위나 감정에는 중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페ť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페ť의 주장이다. 페ť은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불간섭으로서의 소극적 자유, 즉 ‘~로부터의 자유’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보고, 자의적 지배가 없는 비지배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페ť은 자의적이지 않은 간섭이 있어도 비지배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순자와 맹자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고,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법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고, 마음을 수양하여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아야[求放心(구방심)]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순자와 맹자는 모두 소인(小人)도 수양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정약용의 입장 이해하기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성리학의 성즉리(性卽理)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경향성[嗜好(기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선한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사덕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듀이와 에피쿠로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듀이,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듀이는 인간의 지성이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지성을 발휘하여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즐거움이 그 자체로서 유쾌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모든 즐거움이 적극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8.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석가모니는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과 그것을 소멸[滅(멸)]하는 길을 밝힌 사성제(四聖諦)를 제시하였다. 석가모니는 사물에 대한 집착이 무명(無明)과 이로 인한 애욕으로 생겨나며,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 윤회(輪廻)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밀과 칸트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밀, 을은 칸트이다. 밀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되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밀은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유래하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동기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아퀴나스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다섯 가지 방법으로 신을 논증하였다. 또한 아퀴나스는 인간이 신의 의지로 정립된 법칙을 이성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인간이 현실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원효와 지눌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원효, 을은 지눌이다. 원효는 중생의 마음에 청정한 본래의 마음[眞如(진여)]과 선악이 뒤섞여 있는 현실의 마음[生滅(생멸)]의 두 측면이 있지만, 일심(一心)에서 보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지눌은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달았더라도 오랜 습기(習氣)는 바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인 수행[漸修(점수)]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마음의 본체[定(정)]와 마음의 작용[慧(혜)]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하였다. 한편 원효와 지눌은 모두 종파 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스피노자의 주장이다. 스피노자는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만물의 궁극적 원인인 신, 즉 자연과 이 원인으로부터 사물들이 발생하는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공자와 노자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공자는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직책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正名(정명)]할 때, 사회적 혼란이 사라지고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자는 통치자가 형벌보다는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는 덕치(德治)를 주장하였다. 노자는 제도와 규범이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사회는 혼란해진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공자와 노자는 모두 도(道)를 다스림의 근본으로 삼아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장자의 입장 이해하기

(가)는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도(道)를 따르는 삶을 통해 실현되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경지로서 제물(齊物)과 소요(逍遙)를 제시하였다. 장자는 이러한 경지에 오른 이상적 인간을 일컬어 성인(聖人), 지인(至人), 진인(眞人), 천인(天人), 신인(神人) 등으로 칭하였다. 한편 인의(仁義)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진술은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입장이다.

15.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마음뿐만 아니라 개별 사물에도 이치[理]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개별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지극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보았고,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아 내 마음의 이치인 양지를 개별 사물에서 온전하게 실현해야[致知格物(치지격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이(理)와 기(氣) 모두 운동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이는 이는 운동성이 없고 기는 운동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이는 기는 개개의 사물에 따라 천차만별하게 드러난다[氣局(기국)]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황과 이이는 모두 이는 형태가 없고[無形(무형)] 기는 형태가 있다[有形(유형)]고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키르케고르와 에픽테토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에픽테토스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신을 믿고 따르겠다는 주체적 결단을 통해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픽테토스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에 의해 운명지어진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베이컨, 을은 데카르트이다.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가로막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보았고, 관찰과 실험을 바탕으로 참된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확고부동한 진리를 도출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것을 철학의 제1원리로 삼아 확실한 지식을 연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베이컨과 데카르트는 모두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로크와 루소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로크, 을은 루소이다. 로크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자연법의 집행권을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고 보았고, 입법권은 신탁(信託)된 권력이므로 입법부가 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고 보았고, 일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로크와 루소는 모두 정부는 시민으로부터 법의 집행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20. [출제의도] 플라톤과 모어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플라톤, 을은 모어이다. 플라톤이 추구한 이상 국가는 세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조화를 이룬 국가로,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인(哲人)이 통치한다. 모어가 추구한 이상 사회인 유토피아는 생산과 소유에서 평등이 실현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이다.